

[종합]

무안공항 국제선 週 19편 뜬다

세관·출입국 관리 인력 증원 등 국제공항 발돋움

광주~무안 고속도 28일 개통... 제주 노선도 추가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28일 무안~광주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에 따른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으로 국제공항으로서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무안~나주 구간만을 개통·운영해왔던 무안~광주 고속도로 41.35km 전 구간이 오는 28일 오전 7시 완전 개통되며 그동안 광주공항에서 운항하던 국제선이 모두 무안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은 기존의 주 15편에서 모두 19편으로 늘어나게 돼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 자리잡게 됐다.

한편 국제선은 오는 29일 대한항공이 중국 상하이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오후 1시 20분 첫 도착하고, 베이징발 아시아나항공이 30일 오후 1시 45분에 첫 도착하는 등 주 2편씩 운항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상하이(동방항공·대한항공) 주 9편, 타이베이(부흥항공) 주 2편, 선양(남방항공) 주 2편 등 정기선 13편과 참사, 마카오를 오가는 부정기선 등 총 19편의 국제선이 매주 왕복 운항하게 된다.

이 같은 국제선 증가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C) 인력도 9명이 증원돼 탑승수속도 빨라질 전망이다. 세관의 경우 11명에서 13명으로, 검역소는 23명에서 25명, 출입국관리소는 10명에서 15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이번 고속도로 완전 개통으로 광주시청에서 무안공항까지의 소요시간도 기존 50분에서 25~30분 정도로 단축된다.

여기에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김포노선(하루 1편)만이 왕복하고 있는 국내선도 대한항공에서 29일부터 제주 수·토요일 제주노선을 추가 운항하게 되며, 저가 항공사를 중심으로 제주와 김해노선 등에 취항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공항내 식당과 편의점, 면세점 등 편의시설과 최첨단 항행안전시설을 갖춘데다 주차장 무료 개방, 항공사와 여행사에 대한 국내 최고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공항 활성화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안=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광주 '세계인의 날' 25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중국인들이 전통 춤시위를 선보이고 있다. '세계인의 날'은 국내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인종·국적을 초월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종부세 과세기준 6억 → 9억 상향

與, 금주중 입법 추진

한나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5%인 거래세율을 2%로 낮추는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지난 21일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의 열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금주중으로 입법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당 관

계자들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단일화하고 두 개를 합쳐 현재 5% 수준인 세율을 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남뉴스

"정 장관 해임 반대하면 20억 예산 지원"

농식품부, 지자체 회유 파문

농림수산물식품부가 국회의 정운천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측은 지난 24일 "농림수산물식품부 측에서 정운천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참여하면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김부관 총남 부여군수에 게 전화한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여군수는 '지원 얘기만 없었으면 서명을 안했을텐데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의 이런 발언은 지난 22일 부여군청에서 열린 부여군 농민단체협의회 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 나왔다고 강 의원 측은 전했다.

강 의원 측은 또 "임성규 논산시장도 22일 오전 농민단체 대표들이 해임 건의안 반대성명에 서명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농어촌 뉴타운과 유통회사 설립 관련 교육이 있었는데 그 내용인 줄 알고 서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안다"며 "농식품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자체장들을 회유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관련 지자체장들은 농식품부의 압박으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지역민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농림수산물식품부 측은 "부여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우주인 이소연 이달 31일 광주 온다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사진)씨가 오는 31일 지구 귀환 이후 처음으로 고향 광주를 찾는다.

2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는 29일부터 4일간 광주시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의 유망인사 세미나에 초청돼 31일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항우연 관계자는 "이씨는 현재 6월 중순에 있을 우주임무 결과 보고회를 준비하느라 외부 일정 대부분 중단한

채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광주 청소년박람회 강연은 이 씨가 우주로 떠나기 전 이미 약속된 강연이고 청소년들을 만나는 자리여서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날 1시간여 강연을 한 뒤 곧바로 대전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



채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광주 청소년박람회 강연은 이 씨가 우주로 떠나기 전 이미 약속된 강연이고 청소년들을 만나는 자리여서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날 1시간여 강연을 한 뒤 곧바로 대전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

초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선택 아닌 필수

나홀로 출퇴근 이제 그만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국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정 경제에도 주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할 정부마저도 속수무책이다. 이제 에너지 절약이 선택 아닌 필수 덕목이 된 상황에서 초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방안과 대안을 찾아본다.

카풀만 해도 에너지 10% 절감

〈승용차 함께타기〉

휘발유 1당 1,900원 웃돌아도 '1인 승차' 많아 대중교통 이용·승용차 5부제 운행 '절약 실현'

지난 22일 오전 8시께 광주시 제2순환도로 소태 요금소에 출근 길을 서두르는 차량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은 화순과 나주, 담양 등지에서 광주로 출근하는 차량과 광주에서 지방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대부분이다.

출근에 이용되는 자가용 10대 중 절반은 운전자 1인만 승차한 '나 홀로 차량'이었다. 반면, 2~3명이 함께 승차한 차량은 10대 중 2~3대에 그쳤다.

같은 날 오전 8시 45분께 광산구 서봉동 호남대 정문 앞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등교·출근 차량이 교내로 함몰되어 있었다.

학교가 광주시대 중심가와 비교적 떨어져 있는 만큼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학생·교직원들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날 10대 중 7대는 운전자 1인만 승차한 '나 홀로 차량' 행렬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1당 1천900원을 웃도는 살인적 초고유가 시대지

카풀만 해도 에너지 10% 절감

만, 이같은 에너지 낭비 사례는 곳곳에서 볼 수 있고, 혼자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좀체 줄이 않고 있다. 실제 지난달 19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가 광주지역 5개 대학의 운전자 1인만 승차한 '나 홀로 출근 차량' 및 승용차 5부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실태는 여실히 드러난다. 호남대의 경우 전체 101대 중 83대(82.2%)가 '나 홀로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에서 호남대에 이어 광주대 145중 116대(80%), 광주교대 83중 65대(78.3%), 조선대 866대 중 596대(68.8%), 전남대 280대 중 179대(63.9%) 순으로 나타나 광주지역 대학들 대부분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반면 소수이긴 하지만 기름값 절약을 위해 일부 직장인들은 직장 동료와 '카풀'(Car pool·승용차 함께 타기)을 시작하거나,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을 이용, 에너지 절약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경우도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고유가시대가 하더라도 카풀과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5부제만으로도 에너지를 10%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셈이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52)씨는 "최근 자전거를 찾는 고객들이 다소 늘긴 했으나 아직 자전거 이용 붐이 일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자전거 활용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깨끗이 하는 일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도 "자동차 함께 타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국가와 가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며 "차량이용을 줄이고, 기름값 소비를 따지는 것이 에너지 절약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인현기자 ahj@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주두

이젠 내겐 관심조차 없다

광주광역시광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 직통: (062)227-9600
· 문의: (062)220-0553
· FAX: (062)227-9500

www.gitct.or.kr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21세기 문화콘텐츠산업의 아낌 이야기꾼들 모여라!

스토리텔링 아카데미는 광주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지원, '21세기 문화콘텐츠산업의 아낌 이야기꾼들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대상: 문화산업계 종사자, 유관학과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
■ 교육기간: 2008. 6. 9(월) ~ 2009. 1. 19(월) [96h, 32주]
■ 교육시간: 매주 월 또는 수 19:00 ~ 22:00
■ 특 전: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수강료(전액무료)
·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문화창작해의연수프로그램 지원
· 국내 최고 30분의 스토리텔링 전문가들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 멘토 1인이 멘티 5명의 실가지도 실시

■ 접수 및 문의
접수기한: 2008. 5. 30(금) 18:00까지
상세내용: (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www.gitct.or.kr
문 의: (062)350-2448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Gitct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진흥원)

2008학년도 후기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모집

전형일정

구분	일정	내용
인터넷 원서접수	2008. 5. 19(월)~5. 30(금)	· 어플리케이션 http://applybank.jinhak.com (홈 센터) 1544-7715
제출서류	2008. 5. 19(월)~6. 2(월) (기말업수)	· 제출서류는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며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구술시험(면접)	2008. 6. 14(토), 10:00	·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11층 주임교수 명단함조)
합격자 발표	2008. 6. 20(금), 예정	·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 www.chosun.ac.kr/~grad를 통해서 발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합격자등록	교지서교부	합격자 발표시 공지한 유의사항 숙지
	등록금납부	2008. 6. 23(월)~ 6.30(월) 은행업무 마감시간까지

※ 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모집과정

구분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일반과정	000명	00명	
협동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00명	0명
	학연산 협동과정	0명	0명
계	000명	00명	

◆ 모집학과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chosun.ac.kr/~grad 또는 대학원 교학팀(☎062-230-64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